

교환학생 보고서

소속전공	전자공학부	학 번	201**119	성 명	김규민
주 소		휴대전화		메일주소	
파견국가	독일	파견대학	하일브른응용과학대학교	파견학기	2016-1
소요경비	1000만원				
주거	세어하우스				
룸메이트	혼자거주				
기숙사 내 한국인	같이 갔던 동생				
파견대학 정보	기계공학부 및 경영학과 특성화학교로 저는 전자공학부 학생이어서 들을 과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학기대체로 오시는 전자공학부 학생들은 거의 소프트웨어 과목을 들어야합니다.				
파견대학 국제 교류부서	internation office 로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8:00 (?) ~11:30 정도이며 목요일만 오후에 운영합니다.				
주말 및 여가활동	저는 주로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원래 여가활동으론 축구부를 가입해서 했었지만 집과의 거리가 멀기도하고 버스 시간도 잘 맞지 않아서 그만뒀습니다. 많은 동아리 활동이 있으므로 정보를 잘 찾아보셔서 가입하시면 재밌게 여가활동 하실 수 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귄 수 있습니다. 수영부는 가입하게되면 정가보다 싼 가격으로 수영장 입장 가능하시고 대신 정원이 정말 빠르게 차므로 가입시기되면 바로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멘토 또는 교류도우미	저희 학교처럼 교류도우미가 많아서 1:1로 붙진 않습니다. international office에 가면 도우미들이 있고 학기초에 선생님들과 같이 와서 학생들은 도와주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면 선생님들과 같이 올 때 가셔서 연락처 물어보고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전공	원래 전공수업을 신청해서 들었지만 너무 어려운 관계로 전공은 모두 취소하고 교양위주로 듣고 발표능력 향상키시고 싶어서 발표수업만 4개 정도 신청해서 들었습니다.				
수업	여유시간을 가지고 개인 공부하고 싶었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어서 수업은 최대한				

스케줄	몰아서 들었습니다. 저는 주로 월화수목에 몰고 금토일을 여행다니는 식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독일어수업은 6번빠지면 f이므로 보통 월 수 수업이 있는데 이날은 저녁 까지 수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할인 관련	완전 큰 할인을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약간 2유로? 3유로 정도 할인이 되는데 그것도 쌓이면 꽤 큰 금액이니 어딜 들어가시든 학생할인 있냐고 물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ISIC카드 활용	보통 여행가면 많이 이용하는데 일부분은 학생비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박물관이나 어디 입장하는 곳이 있으면 학생이라고 말하고 isic카드 보여주면 할인해 줍니다.
영어공부	저는 단어장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인터넷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남는 시간에 공부하였고 처음부터 노는 습관을 들여두면 집에서 공부하기가 힘드니 처음부터 조금씩 실천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여행	저는 독일내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보통 flexbus를 이용하여 만약 하일브론-베를린을 간다면 바로 가지 않고 중간 마을을 들러서 하루정도 쉬면서 이동하면서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스캐너 앱을통해서 여행가기전 계속 비행기 티켓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파리같은 경우 학생비자가 있으면 정말 많은곳이 무료로 입장가능합니다. 특히 루브르, 오르셰 박물관 , 개선문 등 입장가능하니 고려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	semester ticket이라고 가지고 있으면 학생은 무료로 하일브론내 (네르카줄름 까진 가능) 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semester ticket이 학기 시작 후 2주 정도 후에 나오므로 혹시 international office에서 semester ticket 관련 서류제출하라고 하면 정말 빠르게 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대중교통이 비싼편이라서 blablacar 라는 앱이 있는데 카풀시스템이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가능합니다.
날씨	저는 여름학기라서 그런지 날씨가 정말 정해져있지 않았습니다. 도착 후 거의 2주정도는 흐려서 햇빛을 거의 못보고 그뒤론 비왔다가 맑았다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방에 우산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현지인들은 우산 안쓰고 거의 맞고 있는데 신경쓰지마시고 그냥 우산쓰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건조해서 핸드크림 & 인공눈물 필수입니다. 저도 거의 핸드크림 안썼는데 독일에선 정말 많이 썼습니다.
해외인턴	
추신	참고로 학교에서 뭐 하라고 하는게 정말 많습니다. 알아듣기 힘든 것도 많으니 한국인이나 다른친구들 모아서 같이 해결하는것도 좋은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계획 잘 세워서 학기 보내셔야 보람찬 교환학생 시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보완점	